

언어능력평가시험

(문제지)

학년도	2020 학년도
원	원
학과(전공)	과(전공)
수험번호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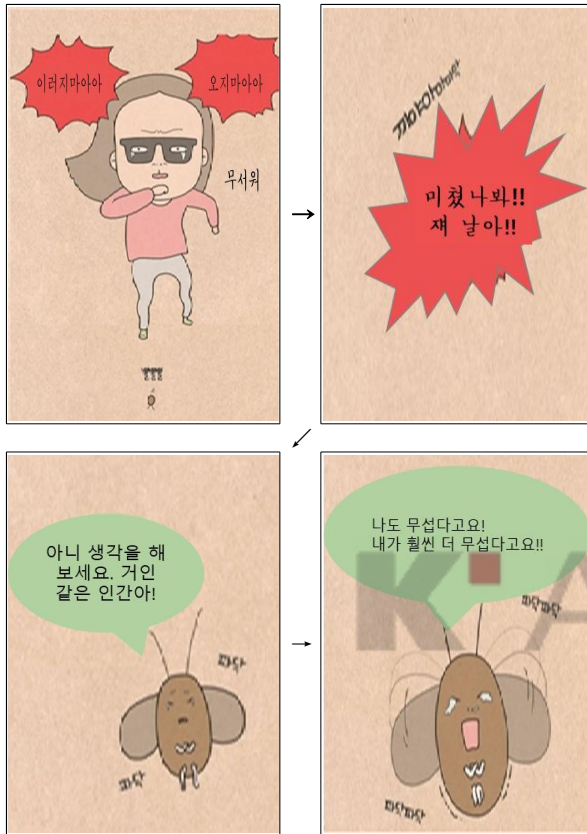
※감독관 확인	
---------	--

한국예술종합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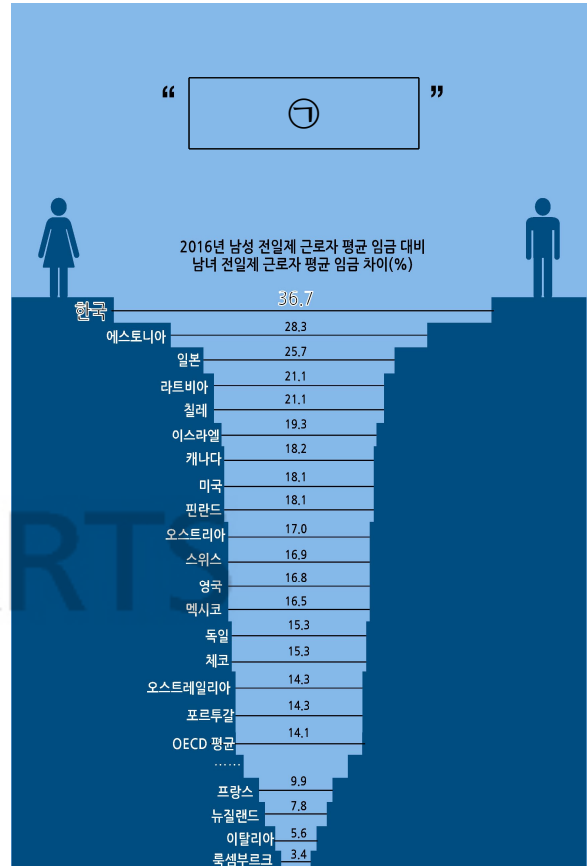


언어능력평가

1. 다음 만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상황과 일치하는 그림은?
[2점]



2. '직장 내 남녀 차별 문제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포스터를 만든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 동상이몽(同床異夢)
㉡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 한 발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통합니다.
㉤ 평등,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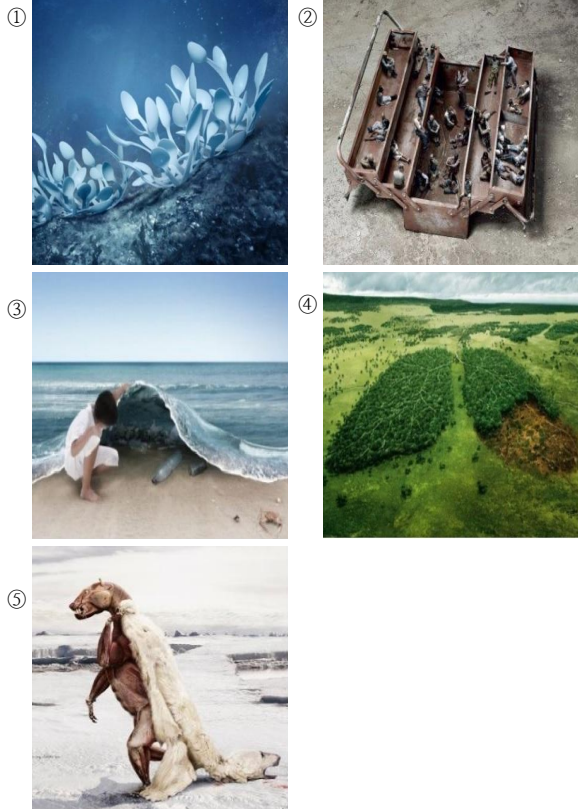
3. 다음은 환경문제 관련 공익광고 제작을 위한 회의의 일부이다. ㉠에 해당하는 광고 이미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보 기〉

- A: 여러분 이제 공모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시안을 가져와서 검토해 보기로 했지요? 한 사람씩 이야기해 봅시다.
 B: 저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미지를 준비해 봤어요. 한 번 봐주세요.
 A: 일단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으스스한 느낌도 들고 이미지가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친숙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B: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표현상의 효과를 강조하려다 보니 좀 작위적인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
 C: 이걸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문제를 지적하는 공익광고인데요. 환경문제를 다루는 공익광고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 B: 이걸 좀 더 재치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키보드와 손가락을 이용해서 입의 모양을 형상화하면서도 이미지의 조작이나 왜곡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 같아요.
 C: 그리고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포스터만큼 혐오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잔혹하거나 선정적인 이미지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A: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다음 회의 때는 오늘 토의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광고 시안을 가져와서 검토해 봅시다.



4. <보기>는 포스터 제작을 위한 회의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광고로 적절한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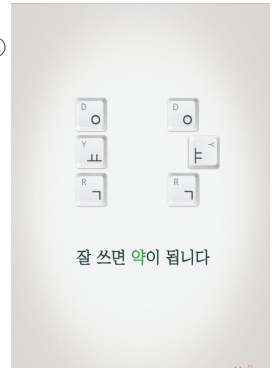
〈보 기〉

- 현수: 이번 공모전 주제는 관심과 배려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에 대해 말해 보면 어떨까?
 지연: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건 중요하지. 그런데 꼭 거창한 대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수: 맞아. 그럼 학교를 주제로 하되 일상 속의 의사소통을 다루면 좋겠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소외를 부르는 것 같거든.
 지연: 동감이야. 관심과 배려라는 주제와도 잘 어울린다. 소외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현수: 그럼 나는 우리의 문제를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 표어를 만들어 볼게.
 지연: 좋아. 표어가 완성되면, 표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시각화해서 메시지가 선명히 전달되도록 이미지를 디자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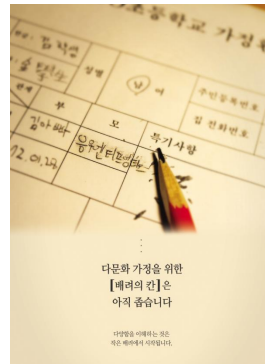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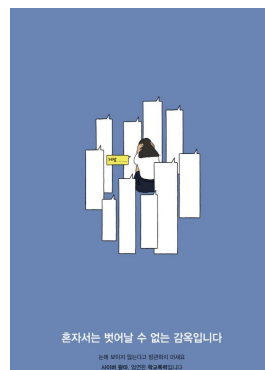
③



④



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프랑스의 문화계 인사와 지식인들의 화두는 문화재 복원이었다. 1793년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연 이후 과거의 왕정 시대 유물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서서히 바뀌어갔다. 루브르 성은 이제 만인의 위에서 군림하며 신보다 더한 지위를 누렸던 왕들의 거처나 지위버려야 할 역사의 증거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며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이였다. 박물관으로 변신한 베르사유 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왕정 시대의 유물은 새로이 태어난 프랑스의 영광을 한층 빛내 줄 과거의 유산이었다. 1830년부터 정부의 지휘 아래 혁명 이후 허물어진 프랑스 전역의 성과 문화재들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실내장식까지 온전히 되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 복원 계획이 속속 발표되었다.

복원 사업의 걸림돌은 앞선 혁명정부 시절에 많은 문화재가 외국으로 팔려 나가거나 파괴되었다는 점이었다. 사라진 유물들의 자리를 빈자리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만든 복제품으로 감쪽같이 채워 넣을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19세기 프랑스인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퐁텐블로 성의 프랑수아 1세 갤러리나 생클루 성의 마리 앙투아네트 거처, 베르사유 궁 등의 내부를 하나하나 복제품으로 복원해 나갔다. 19세기를 다룬 미술사 책에서 종종 역사주의(historicisme)라는 용어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역사주의는 결국 이처럼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은, 사라져 간 과거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사조라 할 수 있다. 19세기 사람들은 눈부신 발전의 시대를 살면서도 동시에 과거를 완벽히 되살려내 그 속에서 과거의 사상과 정신을 이해하고자 했다.

1848년, 마침내 왕정이 무너지고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주축이 된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정신적으로는 왕정 시대의 인물이나 다름없던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해 1852년에 황제로 등극, 제2제정시대를 선포했다. 황제의 측근답게 제2제정의 거물들은 역사주의를 속세의 유행으로 이끄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17~18세기 왕실에서 사용된 왕가의 가구들은 19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사고파는 것이 여의치 않은 데다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았던 터라 자연히 진품 고가구 대신 복제품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주역으로 등장한 신흥 부르주아, 즉 당시의 중산층에게도 역사주의 논쟁을 거쳐 눈앞에 나타난 과거 왕정 시대의 성과 그 내부의 화려한 장식은 바로 명예와 부,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지난 영화를 되살리고자 복원된 문화재들과 상류층에서 내려온 복고 유행은 중산층에게 무엇이 '부터'나는지 가르쳐 준 선생님이 셈이었다.

게다가 과거의 문화재로 집 안을 치장하고 이를 화제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다. 왕정 시대의 스타일로 집 안을 장식한 뒤 사람들을 초대해 이게 무엇인지 자랑하려면 그만한 교양과 지식이 필요했다. 이런 교양과 지식이야말로 경제적 여유 말고도 품위와 문화적 안목까지 골고루 겸비한 교양 넘치는 중산층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표식이었다.

19세기는 스타일보다 취향을 중시한 시대였다. 스타일이란 그 시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이 한데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나의 양식을 가리킨다. 반면 취향은 무엇이 좋고 싫은지를 선택하는 감각 또는 그 행위이다. 카탈로그를 넘겨보면서 눈앞에 놓인 여러 시대의 스타일 중에 무엇이 거실에 어울리는지, 어떤 스타일로 식당을 꾸밀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취향이다. 취향이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것, 즉 지식이나 경험의 한계를 결코 넘어서 수 없다. 19세기의 부르주아들이 남들 앞에 드러내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취향이었다.

하지만 신흥 부르주아들은 걸맞은 돈 것이 아니라 영리한 소비자이기도 했다. 아무리 우아하고 부티나는 스타일이라 해도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향유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과시적이고 선택적인 부르주아들의 취향은 스타일의 혼종을 불러왔다. 작은 살롱은 루이 13세 스타일, 큰 살롱은 루이 15세 스타일, 식당은 앙리 4세 스타일로 꾸며진 그들의 저택은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런 19세기 부르주아들의 속물적 취향을 비웃을 수 있을까? 일명 '럭셔리'하다고 일컬어지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예식장의 인테리어를 떠올려 보자. 이들의 취향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5. 뒷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혁명 직후 프랑스 전역의 많은 성은 지워져야 할 과거 역사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 ② 19세기 프랑스에서 과거 왕정 시대의 유물은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여겨졌다.
- ③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진품의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과거 가구의 복제품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④ 19세기에는 역사주의의 영향으로 과거의 가구나 실내장식을 그대로 재현해 내는 기술이 발달하였다.
- ⑤ 오늘날 한국에서 서구 19세기 풍의 인테리어가 유행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스타일이다.

6. <보기>의 사진은 어느 드라마의 세트장으로, 한옥풍으로 꾸민 부잣집의 실내이다. 뒷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사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 ① 실내에 한옥 기와지붕을 재현해 놓아 복고풍의 취향을 보여 주고 있어.
- ② 한옥풍으로 꾸미는 한편 현대적인 가구도 배치해서 편리함도 추구하고 있네.
- ③ 동양풍과 서양풍 등 여러 스타일을 취향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어.
- ④ 한옥의 편액(扁額)이나 벽면의 액자 등은 주인의 교양과 지식을 자랑하는 듯해.
- ⑤ 잘 꾸민 거실에서 과거의 세도 높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지배 계층의 향수가 엿보여.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증언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의 한 종류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증언을 수용할 때, 정보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정보의 사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다면 증언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증언은 오로지 증언하는 자의 말 자체가 지식이자 정보로 수용된다. 그런데 이성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말이 지식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정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물리적 증거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판단은 증인이 과거의 사건을 진실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사실상 우리가 지닌 많은 지식은 진실성과 상호신뢰성을 바탕으로 축적되었다. 나아가 다른 증언들과의 대조와 종합을 거친다면 증언의 주관성과 자의성은 극복될 수 있다.

증언이라는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은 문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홀로코스트의 목격자, 생존자의 증언, 2차 대전 및 전후에 대한 증언, 여성이나 노예 등 하위 주체들의 삶을 재현한 작품은 ㉠ 증언문학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이 같은 문학들이 증언문학이라 불렸던 일차적인 이유는 이 텍스트에 담긴 정보들이 사실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증언문학은 실제 사건을 체험한 당사자나 목격자가 사후(事後)에 그것을 특정한 언어 양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룬 모든 문학이 증언문학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데, 증언문학에서 다루는 사건은 중요성에 비해 그 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증언문학에 의해 다루어지는 사건은 문학적 증언 행위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거나 수정·보완되는 특징을 갖는다.

증언문학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알지 못했던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증언문학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제출될 경우 그 작품은 위증으로 비난받거나, 사실 관계의 지난한 투쟁에 휘말릴 수 있다. 예컨대 남미 여성의 비참한 삶을 증언한 멘추의 자서전 『나, 리고베르타 멘추』는 그 의의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12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생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작품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리가 증언문학을 접할 때 언제나 그 사실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체험은 다른 물적 증거로 보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아우슈비츠에 대한 프리모 레비의 증언은 오로지 아우슈비츠를 체험하고 그 현장을 목격한 레비의 고유한 위치에 의해 재현되는 것이지, 다른 물적 증거들에 의해 확증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 사건의 경험은 그 자체로 경험자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한다. 증언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영원히 허구로 남게 될 것이다. 증인은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재현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소한 사실 여부가 아니라, 세상에 진실을 밝히는 증언 효과이다. 특정 사건은 증언을 통해서만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는 문학의 의미와도 일치한다. 증언은 언어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특정한 형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학과 친연성을 갖는다. 작가가 목격한 현실을 공정하고 용기 있게 전달하는 증언문학은 현실과 대결하며 인간과 사회에 관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증언의 사실성을 판단할 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증언은 지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
- ② 증언은 진실성과 상호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로 수용될 수 있다.
- ③ 증언의 본질적 속성인 주관성과 자의성은 물적 증거와의 대조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 ④ 중요한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소수자가 경험한 비참한 현실 역시 증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없었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증언문학이 문학 장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재현해야 한다.
- ② 증언문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지만 증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큰 비난에 시달릴 수 있다.
- ③ 증언문학은 과거의 사건을 특정한 언어의 형식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증언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
- ④ 증언문학이 증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담긴 정보들이 사실성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
- ⑤ 증언문학은 감추어지거나 밝혀지지 않았던 과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현실과 대결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은 복수(複數)의 매체를 넘나들며 하나의 스토리 경험을 전개하는 콘텐츠 또는 그 연계된 텍스트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용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일반화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헨리 젠킨스에 따르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둘째, 각각의 새로운 텍스트가 전체 스토리에 분명하고도 가치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 셋째, 각각의 텍스트는 자기충족적이어야 한다. 넷째, 어떤 텍스트든지 전체 스토리들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작가인 앤드리아 필립스는 이 가운데 웹사이트나 모바일 페이지 등의 형식에서 획득되기 어려웠던 자기충족성의 개념을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다매체를 사용하며, 일관된 서사 경험을 제공하고, 미디어 간 불필요한 반복을 하지 않는다. 특히 미디어 간 불필요한 반복 방지라는 항목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사실 다매체를 사용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지난 십여 년간 한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 의제였던 원소스멀티유스(OSMU, One Source Multi Use) 전략이 그것이다. OSMU 전략은 성공한 원천 콘텐츠를 각색을 통해 다매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트랜스미디어는 다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OSMU와 공통분모를 갖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원작 각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별로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여 쓴다.

OSMU 전략에 따른 스토리텔링이 원작과 동일 스토리, 동일 세계를 공유한다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세계 안에 다수의 스토리들(one world, many stories)을 가진다. OSMU의 결과로서 전체 스토리는 부분 스토리의 합이거나 그보다 작다. 스토리 세계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랜스미디어의 결과로서 전체 스토리 세계는 부분의 단순 합 그 이상이다. 독자·관객은 궁극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매체별로 흩어진 스토리 조각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연결시켜야 한다. 작가 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관객 주체의 적극적 참여로 완성된다는 점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작의 스토리 세계가 후속작의 스토리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리로르 라이언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확장(expansion), 수정(modification), 치환(transposition), 인용(quotation)의 네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확장은 원작 스토리의 세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연장이 스토리의 시간이나 길이를 늘리는 것이라면, 확장은 양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원작의 스토리 세계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세부 요소나 에피소드 단위로 추가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단순한 연장이지만, 새로운 시간대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방식은 양적 팽창으로서의 확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 따라서 확장이란 더 많은 등장인물을 추가하거나, 조연 캐릭터들을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전환하거나, 캐릭터들이 새로운 스토리 세계 지역을 방문하거나, 전편이나 속편을 통해 원작 스토리의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둘째, 수정은 원작의 스토리 세계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히어로물을 연애물로 바꾸는 등 이야기를 전혀 다른 허구적 층위를 지닌 이야기로 변경하는 것이다. 셋째, 치환은 원작 세계의 설정과 메인 스토리를 유지하지만 그것을 다른 시공간적 배경에 위치시키는 방식이다. 넷째, 인용은 전체 서사나 맥락과 상관없이 원작 서사의 특정 스토리 요소를 단순 인용하는 것으로, 이는 후속작의 새로운 허구적 세계에 통합되지 못하는 부조화를 발생시킨다. 원작 서사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인물이 후속작의 세계에서 다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원작의 세계 안에서 해당 캐릭터가 쌓은 공적과 명성을 언급하는 것은 각각의 스토리에서 인물이 지나는 위상의 편차를 상기시킨다.

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는 각각의 텍스트에서 스토리의 유의미한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다매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이라는 점에서는 OSMU 전략과 동일하다.
- ③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독자나 관객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기 시작해도 무방하다.
- ④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는 일정 비율로 기존 스토리의 반복을 포함함으로써 독자나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 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독자나 관객은 각각의 미디어를 오가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완성하는 능동적 역할을 한다.

10.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보 기>

크로노스(kronos)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 일정한 흐름을 연속된 시간을 의미하는 반면, 카이로스(kairos)는 일순간이나 특정한 때, 특정한 사건으로 경험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크로노스가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면 카이로스는 유의미하고 특별한 사건이나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에 관심이 있다.

- ① 원작 스토리를 그대로 다른 미디어로 재현하는 OSMU는 카이로스적 변형이다.
- ② 원작 스토리의 일부 에피소드를 선택·확대하여 다른 미디어로 재현하는 OSMU는 크로노스적 변형이다.
- ③ 원작 스토리가 끝난 시점에서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서 쓰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카이로스적 변형이다.
- ④ 원작 스토리와 같은 시간적 배경을 다루면서 새로운 캐릭터의 이야기로 바꾸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크로노스적 변형이다.
- ⑤ 원작 스토리와 다른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여 같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크로노스적 변형이다.

11. 아래 <보기>는 「쿵푸팬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예다. 윗글의 (가)를 참조할 때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극장용 애니메이션 <쿵푸팬더>는 평화의 계곡을 배경으로 아버지 핑과 함께 국수 가게를 하던 주인공 포가 쿵푸 고수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다. 포는 용의 전사를 뚝치는 시험장에 구경 갔다가 우연히 대사부 우그웨이에게 지목되어 쿵푸 훈련을 받게 된다. 이후 악당 타이링이 마을을 습격하자 무적 5인방과 힘을 합쳐 그에 맞서 싸운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쿵푸팬더2>는 ㉠공문시(市)를 배경으로 중국 전체를 지배하려 드는 악당 셴을 물리치는 이야기다. 무적 5인방 모두가 힘을 합쳐 셴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다. <쿵푸팬더3>에는 영혼계에서의 수련으로 대사부 우그웨이를 제압한 적수 카이가 등장하는데, 그는 우그웨이의 친구였으나 '기'라는 강력한 기술을 갖게 되면서 악당이 되어 버렸다. 포는 무적 5인방을 사부로서 가르치면서 카이보다 강력한 '기'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한편 ㉡핑이 포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이 알려지면서 포는 친아버지를 찾아 팬더마일로 떠나야 한다.

TV 시리즈 <쿵푸팬더: 다섯 용사의 비밀>에서는 평화의 계곡을 배경으로 ㉢무적 5인방이 주인공으로 등장, ㉣이들이 각자 고수가 되고 5인방으로 뭉치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진다. TV 스페셜 <쿵푸팬더: 홀리데이 스페셜>에서는 ㉤포가 아버지 핑과 함께 동지 만찬을 즐기지 못하는 서운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① ㉠은 새로운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으므로 수정에 해당한다.
- ② ㉡은 기존의 스토리와 다른 성격의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치환에 해당한다.
- ③ ㉢은 기존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다시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인용에 해당한다.
- ④ ㉣은 기존에 다루어진 시간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으므로 확장에 해당한다.
- ⑤ ㉤은 새로운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고 있으므로 치환에 해당한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상호거래적 독자반응이론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거래’를 분석하는 문학 분석 방법론이다. 이 이론은 독자의 반응과 독자에 의한 텍스트 해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독자반응 비평에 속하지만, 문학 텍스트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의미를 생산하는 데 있어 텍스트와 독자 모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상호거래적 독자반응이론에서는 텍스트와 독자, ㉡ 시(詩)의 의미를 각기 구별하여 사용하는데, 여기서 시는 특정한 문학 장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지면에 활자화된 언어들이 텍스트라면, 텍스트와 독자가 만나 함께 생산하는 또 하나의 결과물이 시라고 할 수 있다.

독서가 이루어질 때 각 독자의 기억과 지식, 감정과 몸 상태는 텍스트와 서로 반응을 일으키며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완전히 주관적이거나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텍스트는 설계도 혹은 청사진처럼 작동하며 일탈된 해석의 경로를 바로잡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읽는 내내 자기 교정의 과정을 인도하며, 읽기가 완료된 뒤에도 텍스트에 근거한, 완결된 해석을 안내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조된 해석의 결과물이 ‘시’이다. ‘시’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거래를 통한 산물이며, 이 과정에서 텍스트와 독자는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텍스트에 담긴 정보들에 집중하여 사실과 개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지닌 심미성과 그것이 발생시키는 독자의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확정적 의미와 불확정적 의미로 나누어 설명될 수도 있다. 확정적 의미란 활자화된 말들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사건, 묘사 등을 가리킨다. 반면 불확정적 의미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 행동이나 사건, 즉 독자들이 자기만의 해석을 창조할 수 있는 텍스트 내부의 틈새, 빈틈을 가리킨다.

확정적 의미와 불확정적 의미의 상호작용은 독자에게 새로운 읽기 경험을 선사한다. 독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반추, 예측 및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감정적 판단, 재검토 등의 경험이 계속되는 것이다. 텍스트 읽기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확정적 의미였던 것이 뒤로 가면 불확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작품을 바라보는 독자의 시선과 관점이 화자, 인물, 플롯 등에 따라 계속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거래적 독자반응이론에 의하면 독자에 의한 자유로운 의미 구성조차도 텍스트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 그것을 텍스트가 지닌 내재적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텍스트가 이미 거대한 의미의 폭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해석 가능한 의미의 폭은 텍스트가 지지할 수 있는 의미의 폭과 같다. 아무리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텍스트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해석되지 않으면 지지받을 수 없다. 반대로 매우 훌륭한 해석, 심지어 저자의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텍스트의 유일한 의미가 될 수 없다. 모든 텍스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의미의 폭 안에서 자유로운 해석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거래적 분석은 독자의 반응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텍스트 자체를 중시하는 다른 그 어떤 이론 못지않게 텍스트에도 상당한 권위를 부여한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시’는 독자의 반응과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작가가 의해 주도적으로 창작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좋은 ‘시’는 독자가 자신만의 감정을 중심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텍스트를 해석했을 때 완성될 수 있다.
- ③ 심미적인 접근을 통해서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시’라고 할 수 있다.
- ④ 독자들이 텍스트의 틈새에서 불확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시’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확정적 의미는 언제든지 불확정적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시’는 독자의 시선과 관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3.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보 기 >

㉢ 신비평은 저자의 의도와 생애만을 중시하던 문학 연구 풍토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학작품 해석의 유일한 원천을 텍스트 그 자체에서 찾았다. 신비평은 문학 텍스트가 항상 저자의 의도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독자의 정서적 반응이 작품 해석의 기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와 독자의 존재를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배제하였다. 신비평은 이미지, 상징, 은유, 시점, 배경, 구성 등과 같은 문학작품의 언어적 형식 요소만이 텍스트 해석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문학작품은 최고의 해석 가능성을 스스로 품고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

- ① ㉠과 ㉢은 모두 텍스트 자체에 해석 가능성이 내재한다고 여긴다.
- ② ㉠과 ㉢은 모두 저자의 의도를 텍스트 해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 ③ ㉠과 ㉢은 모두 텍스트에 맞는 적절한 해석과 적절하지 못한 해석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은 문학작품이 담고 있는 심미성과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반면, ㉢은 문학작품의 주제와 사상적 요소를 중시한다.
- ⑤ ㉠은 텍스트 해석에 있어 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은 독자의 감정이 텍스트 해석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자립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바이오매스(biomass)는 생물체를 이용한 에너지원을 통칭한다. 그중 동·식물성 유지를 혼합하여 제조한 바이오중유는 석유의 대체 연료로서 온난화 및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중유는 연료 중 황 함량이 매우 낮아 발전 시 황산화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소 시 석유계 연료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바이오매스의 경향을 생각할 때,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있는 바이오중유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최근 제출된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비교 측정 결과는 바이오중유의 상용화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실험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바이오중유(BFO) 발전소와 중유(HFO) 발전소의 각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수집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총 먼지의 월별 발전량에 따른 배출량을 측정하였다. 굴뚝에 부착된 측정기를 통해 총 3년간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총 먼지	
		HFO	BFO	HFO	BFO	HFO	BFO
연 도	2015	1.314	0.004	0.727	0.554	0.023	0.022
	2016	1.367	0.061	0.721	0.682	0.020	0.029
	2017	1.264	0.168	0.711	0.640	0.018	0.014
평균		1.315	0.078	0.720	0.625	0.020	0.022

단위: kg/MWh(월별 발전량에 따른 배출량)

실험 결과 바이오중유 발전의 황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1MWh 발전당 0.078kg으로 중유 발전 대비 94%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황산화물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첫째, 발전소 운전 시 경유를 착화유로 사용함에 따라 경유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점, 둘째, 중유와 연료 공급 배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배관에 남아 있는 중유가 혼소된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바이오중유 발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중유 발전 대비 13% 이상 저감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질소산화물이 연소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과 두 발전의 연소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출량 저감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총 먼지 배출량은 허용 기준에 비해서는 약 80% 낮은 수준이지만, 중유 발전소와 대비할 때에는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중유 발전소보다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총 먼지 배출량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의 경우 약 50%가 저감되었다. 이처럼 연도별 편차가 큰 것은 발전소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 2017년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향된 방식의 전기 집진기가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먼지의 배출 저감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향후 바이오중유 발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대기오염 물질이 기존 중유 발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도록 힘써야 한다. 실험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지만, 총 먼지 배출량의 경우 발전소와 방지시설의 운전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기존 중유 발전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도 있다. 추후 강화된 관리

기준 및 오염물질 관리 목표를 설정한다면 바이오중유의 보급이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

14.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바이오중유를 사용한 발전은 연소 온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② 동·식물성 유지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일종으로서 화력 발전을 위한 대체 연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 ③ 실험 기간인 3년 동안 석유와 바이오중유 발전 모두 총 먼지 배출량이 허용 기준을 넘지 않았다.
- ④ 황산화물은 측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바이오중유 발전의 저감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물질이다.
- 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바이오중유의 보급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관리 기준 및 목표의 상향이 요구된다.

1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바이오중유를 이용한 발전은 현재 시범보급대상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후 석유의 완전한 대체를 목표로 할 만큼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총 먼지의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각각 38,651원/톤, 37,371원/톤, 52,087원/톤으로 높다는 점에서, 바이오중유를 통해 해당 오염물질이 저감될 경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① 질소산화물 감축만을 위해 바이오중유 발전 방식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 ② 기존의 석유 발전을 대체하여 바이오중유의 보급을 확대한다면 황산화물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 ③ 중유 발전에 비해 바이오중유 발전의 오염 배출량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절감을 위해 장기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 ④ 바이오중유 발전을 통해 기술적으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총 먼지 배출량을 모두 저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⑤ 총 먼지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집진기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바이오중유 발전의 확대는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에서 번성했던 대중극의 한 형태이다.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10~20명의 직업 배우들이 함께 살고, 함께 순회공연을 하는 조직된 전문 극단이였다. 이들이 유럽의 다른 전문 극단들과 다른 점은 대부분 즉흥극을 했다는 데 있다. 이는 상연 전에 완결된 작가의 텍스트가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에도 무대에서 필요한 기초 요소들로 구성된 텍스트가 있었지만, 텍스트가 세부적으로 합의되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배우는 관객의 반응을 살펴가며 텍스트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자신들의 농담, 곡예 기술 등을 덧붙일 수 있었다. 많은 극단들은 귀족, 부르주아, 대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각각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공연을 했는데, 즉흥연기 덕분에 빠르고 다양하게 작품을 준비할 수 있었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에는 유형적 인물들이 반복해서 나오며, 각 배우들은 동일한 배역을 맡아서 했다. 인물들은 부유한 상인으로서 수전노에 음탕한 판탈로네, 수다쟁이 박사(독토레), 피가 많은 하인들(아를레키노, 스카피노 등), 전쟁의 공적을 과장되게 늘어놓는 허풍쟁이 대장(카피타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아한 언어를 구사하는 연인들 등 몇몇 기본적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인물들에는 사회적 유형의 특성이 복합되어 있다. 상업이 발달한 베니스 출신 판탈로네, 대학 도시 볼로냐 출신 박사, 베니스에서 짐꾼으로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이 많았던 베르가모 출신인 하인들 등 인물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언들은 이탈리아 여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고, 이들은 고유한 옷과 가면을 통해서 하나의 시각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정형화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 기본적 갈등의 축을 형성하는 것은 주인과 하인이며, 여배우가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맨틱 플롯을 작품에 도입하기도 했다. 연인들 사이에는 늘 연인의 아버지의 반대와 같은 장애 요소가 있다. 따라서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아버지 판탈로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라지오는 하인의 도움으로 이사벨라의 사랑을 얻는다.’와 같은 줄거리가 기본을 이루고, 거기에 ‘카피타노가 이사벨라를 사랑하여 오라지오에게 결투 신청을 한다.’ 등의 변화가 추가되기도 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민중적 성격은 가면의 사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세의 종교극에서는 가면을 착용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세속적 볼거리에서는 가면을 즐겨 사용했다. 16세기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대중적으로 만든 것도 그들의 가면이었다. 올빼미 머리를 연상시키는 판탈로네의 희극적 가면, 입 주변에 털이 달려 있는 둥글고 검은 아를레키노의 가면 등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가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다. 다만 연인 역의 인물들은 가면을 쓰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연인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우아한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기본적으로 익살극이다. 배우들은 과장된 희극으로 관객을 웃게 만들었으며, 사회에 대한 비판과 조롱, 인물들의 희화화, 성과 관계되는 이야기와 몸짓 등 기존 질서에 대한 파괴, 금기의 위반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인물 유형 중 ‘판탈로네’ ‘대장’, ‘박사’ 등은 기존 사회의 특권층으로 다른 인물들과 하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는 했다. 코메디아 델라르테 무대에는 육체에 대한 찬양, 열정적 에로티즘 같은 르네상스 정신과 풍속도의 단면이 나타나고 있다. 도덕적 교훈이 부재한 결말, 조롱과 비판으로 가득 찬 무대에는 민중들의 단순하고 솔직한 관능의 토로가 있었으며 그것은 엄숙주의와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1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16세기 무렵 유럽의 다른 전문극단들은 작가가 쓴 완결된 대본에 의거하여 공연을 했을 것이다.
- ②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배우들은 즉흥극의 공연 형식을 통해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쉽게 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③ 코메디아 델라르테 극단에서 배우들은 공연 작품이 달라질 때 다른 배역을 맡지 않고 고정적으로 한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 ④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 연인 역을 맡은 배우들은 다른 역을 맡은 배우들에 비해 세련되거나 수사학적인 대사를 사용했을 것이다.
- ⑤ 초기의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는 주인과 하인의 갈등이 중심이 되었으나 로맨틱 플롯이 도입되면서 아버지와 연인의 갈등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코메디아 델라르테’와 ‘봉산탈춤’이 민중극으로서 지닌 특성을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봉산탈춤은 그 기원을 해서(海西)탈춤에 두고 있는데, 해서 지방에서는 5일장이 서는 장터에서 탈꾼들을 초빙하여 1년에 한 번씩 탈춤을 추며 놀았다고 한다. 봉산탈춤은 주로 5월 단오에 행해졌다. 탈놀이는 크게 7과장으로 나누어지며 굿으로 끝을 맺는다. 이중 제4과장은 생불(生佛)이라는 칭송을 받던 노장이 소무에게 유혹되어 파계하는 대목으로 파계승에 대한 풍자를 보여주며, 취발이가 노장과 대결하여 노장을 물리치고 소무와 사랑을 나누는 뒤 아이를 얻는 내용이다. 제6과장은 ‘양반춤’으로서 주로 말뚝이와 양반 3형제와의 재담으로 이루어진다. 시조 짓기와 파자(破字)놀이 등을 통해 말뚝이는 독설과 풍자로서 양반들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봉산탈춤에 사용되는 가면은 노장, 취발이, 말뚝이, 영감 등 모두 34역으로서 겸용 가면이 있기 때문에 26개가 사용된다. 연희가 끝나면 배역들은 가면을 소각하는 소제(燒祭)를 치르면서 풍년과 동네의 무사를 축원한다.

- ① 코메디아 델라르테와 봉산탈춤은 모두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기존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자 했겠군.
- ② 코메디아 델라르테와 봉산탈춤은 모두 배우들의 과장된 몸짓이나 재담 등을 통해 관객들을 웃기는 데 중점을 두었겠군.
- ③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 판탈로네와 박사가 민중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봉산탈춤의 노장과 양반도 민중들의 시선에서 비판적으로 그려졌겠군.
- ④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기괴한 가면을 사용하여 민중들에게 엄숙주의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었던 것처럼, 봉산탈춤도 다양한 가면을 사용하고 또 볼태움으로써 민중들에게 해방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했겠군.
- ⑤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일상적으로 연행된 반면, 봉산탈춤이 단오날 행해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봉산탈춤은 코메디아 델라르테에 비해 특별한 날 열리는 민중들의 축제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었겠군.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적 연금 제도는 재정 운영 방식에 따라 부과식과 적립식으로 나뉜다. 일찍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유럽 각국이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방식은 부과식이다. 부과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거두어 은퇴한 사람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이 시스템은 저수지와 같은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돼 있다. 일하는 세대가 부담해야 할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면 부족한 돈을 더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노인들이 받아가는 연금액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출산을 하락과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등허리가 휘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별이가 똑같은 가장이라도 아래, 위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부양 부담이 적은 가장에 비해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과식에 비해 적립식은 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이를 기초로 은퇴한 후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은퇴 후 돈을 벌 때 자신이 적립한 만큼만을 돌려받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나 기금 고갈과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연금이 갖고 있는 사회보장적 기능, 즉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연금 재정 방식은 이 두 가지를 섞은 중간혼합형이다. 적립식과 부과식 형태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정적립방식으로 통용된다. 이 방식은 돈을 적립하지 않으면 연금을 탈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저부담 고급여 구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현재대의 근로자들이 이전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 성격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계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 전체 적립액을 관리하면서 연금 가입자가 은퇴할 때 급여의 일정 수준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보험료 원리금의 1.5~3.8배에 달하는 연금을 돌려받게 돼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 때문에 노후 복지를 위한 연금 기능을 기업연금 등 민간부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401K는 대표적인 기업연금이다.

기업연금은 기업이나 노동자가 돈을 적립해 퇴직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 확정급부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확정급부형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미리 정해 연금 운용에 대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돈을 잘 굴러 이익이 남으면 기업도 좋지만 주가 하락 등으로 운용 실적이 나빠지면 그 부족분은 ㉣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확정기여형은 연금액을 미리 정하지 않는 대신 매년 적립한 금액을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할 때 돌려받는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 부담한다.

18. 밑글의 주된 설명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대상이 운영되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사전적으로 정의한 후 주요 사례를 덧붙이고 있다.
- ③ 대상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밝히고 시기별 특성을 상술하고 있다.

19. 밑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2.5점]

	㉠	㉡	㉢	㉣	㉤
①	적립식	부과식	정부가	기업이	노동자가
②	적립식	부과식	기업이	정부가	노동자가
③	적립식	부과식	정부가	기업이	국민이
④	부과식	적립식	국민이	노동자가	기업이
⑤	부과식	적립식	기업이	정부가	노동자가

20.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칠레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빨랐던 국가다. 1820년에 퇴직군인연금제도를 도입 및 시행했고, 이후 공무원과 국영기업에 대한 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정부의 복지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과 함께 정부의 경제 개입도 강화됐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칠레의 연금제도는 파탄 직전에 있었다. 경제 악화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줄여나가야 했지만 실제로는 지급액이 늘어만 갔고, 그에 따라 칠레의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제정은 꾸준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피노체트 정권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특권적 연금을 제거하고 난립하던 사회보장제도 역시 단일화했다. 또한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연금을 민간 주도의 연금으로 전환했다. 피노체트 정권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소득의 10%를 개인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하고 장애보험과 생명보험을 선택하여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했다. 특히 연금을 적립액과 수익률에 맞춰 지급하도록 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게 했다.

- ① 1970년대 이전의 칠레 연금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어.
- ② 1970년대 이전의 칠레 연금정책은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해야만 유지 가능한 방식이었어.
- ③ 피노체트 정권이 채택한 연금제도는 세대 간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었어.
- ④ 피노체트 정권이 채택한 연금제도는 인구 구조가 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덜 받는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어.
- ⑤ 피노체트 정권이 채택한 연금제도는 칠레의 이전 연금 정책에 비해 기금 고갈의 위험을 덜 수 있는 방식이었어.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 마치 검은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흐릿했다. 그러나 거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를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했다. 어떤 손님이 이를 보고 물었다.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자들이 그 맑은 빛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추어 볼 수가 없고 또 그 맑은 빛을 취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니 무슨 까닭이요?”

거사가 대답했다.

“거울이 맑으면 잘생긴 사람은 좋아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소.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려 버리고야 말 것이오. 그렇게 된다면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오. ㉠먼지는 그 겉만을 흐리게 할 뿐 그 맑음은 해치지 못하오. 그러니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닦아도 늦지 않을 것이오. 옛날 사람이 거울을 대한 것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려 함이니, 그대는 괴이하게 여기지 마시오.”

…㉡손님은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나)

어떤 사람이 노인에게 물었다.

“㉢영감님은 늘 배에서 사는데 어부로 보자니 낚싯대가 없고, 장사꾼으로 보자니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을 실어 나르는 사공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늘 물 가운데서 오르내릴 뿐 손님을 실어나르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배 하나에 의지해서 위험한 물에서 사시니, 바람은 미친 듯이 불고 물결은 놀란 듯 일어, 돛대가 기울고 노가 부러져서, 혼백이 흩어지고 몸은 떨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지극히 위험한 지경인데도, 영감님은 오히려 이를 즐기는 듯 멀리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려 하니, 무슨 까닭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당신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요?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늘 육지같이 평탄한 곳에서 살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어서 도리어 방심하기 쉽고,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갑자기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을 말ियो. 무서우면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도리어 안전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방심하게 되면 반드시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나는 편안한 곳에서 안심하다가 스스로 위험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위험한 곳에서 살면서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이라요.”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게다가 배라는 것은 고정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요 어느 쪽이든 무게가 쏠리게 되면 자연히 기울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배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하고, 또 배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내가 중심을 잡아 주면 배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풍량이 거세더라도 배가 뒤집힐 염려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 풍량이 아무리 거세다고 한들 어찌 내 마음의 평정까지 어지럽힐 수 있겠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이란 하나의 거대한 파도요,

인심이란 또한 거대한 바람이오. ㉤나의 보잘 것 없는 몸이 세파에 시달리며 아득히 표류하는 것이 작은 배가 넓은 바다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그런데 내가 배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 평상시에 편안한 것만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를 생각하지 않으며, 욕심만 좇을 뿐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은 이것을 걱정하기는커녕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고 생각하니 어쩐 일이요? (중략)

노인은 나그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치자 두 번 다시 돌아다 보지도 않고 말없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 권근, 「주몽설」

2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가)는 직유법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대조법을 통해 인물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설의법을 통해 인물의 핵심적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는 은유법을 통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대응시키고 있다.
- ⑤ (나)는 점층법을 통해 인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22. (가)의 ‘거울’과 (나)의 ‘배’가 지닌 함축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거울’은 자아도취의 태도가 지닌 어리석음을 풍자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② ‘배’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줄 수 있는 도피처를 의미한다.
- ③ ‘거울’과 ‘배’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난 인물의 고유한 관점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다.
- ④ ‘거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창적 시각을 의미하는 반면 ‘배’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을 의미한다.
- ⑤ ‘거울’이 깨지기 쉬운 약한 내면을 상징하는 반면 ‘배’는 세속적인 욕망과 타협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의미한다.

23. 밑글의 ㉠~㉤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 ‘거사’는 ‘먼지’가 거울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 ② ㉡: ‘손님’은 침묵을 통해 거사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
- ③ ㉢: ‘어떤 사람’은 ‘배’가 낚시나 장사와 같은 일을 위해 쓰이는 수단이라 전제하고 있어.
- ④ ㉣: ‘배’에서 사는 것은 위험하지만 언제나 위험을 경계하게 만들어 주니 역설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방편이 될 수 있어.
- ⑤ ㉤: ‘노인’은 세상을 ‘파도’에 비유하면서 배에서 살아가는 일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과 동일시하는 가운데 삶의 교훈을 발견해내고 있어.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78년, 청의 수도 연경을 다녀오는 연행사 행렬에 끼어 북경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제가가 『북학의』를 저술했다. 요동과 북경에서 발달한 문물을 목격한 그는 이 책에서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폈다. 책의 제목인 ‘북학’이 바로 북경의 문물을 배우자는 취지를 담은 말이었다. 청에 대한 반감이 여전해 청을 오랑캐로 여기던 당시로서는 대담한 주장이었다. 적어도 전통적인 주자학을 고수하고 있던 지식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제가는 저술을 통해 공공연하게 북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통 주자학에 대해 일종의 반기를 든 행위이기도 했다.

㉠전통 주자학자들은 의리와 명분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 두 차례 호란을 겪은 이후 조선 사회는 청에게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의리론으로 의식을 재무장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는 18세기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주도한 이들은 주로 집권 노론층이었다. 집권 노론층은 조선이 명을 계승한 유일한 중화 국가임을 내세우며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이는 청에 항복하면서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기여를 했지만 한편으로 부작용도 촉발했다. 조선이 유일한 문화국가라는 자부심이 점차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의식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북학론은 그러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경향에 대해 내부로부터 터져 나온 문제 제기였다.

㉡북학론자들은 의리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부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실용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학론은 전통 주자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려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학론이 제기되고 있던 시기에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 주자학에 대해 전면적인 도전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울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근기남인(近畿南人) 일부가 서학, 즉 천주교를 신봉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경기도 안산에 칩거하면서 학문에 매진했던 이익과 그를 따르는 문인들 가운데 천주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처음에는 천주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했지만 점차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천주교와 주자 성리학은 탄생 배경으로 보나 교리로 보나 애초 화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주자 성리학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북학론과 천주교의 등장에서 나타나듯 18세기 후반 양반 사대부 계층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비(非) 양반층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동이 심해지는 가운데 비 양반층도 신분적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중인들이 주도했던 위행문학 운동이다. 중인과 그 이하의 하층민들은 시사를 결성해 양반들과도 교유하면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벌여 나갔다.

그런가 하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농민층에서도 빈부 격차에 따른 계층 분화가 나타나고, 전국의 주요 장터에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풀려난 광대패들이 가설무대인 별산대를 갖고 나타나 손님을 끌고 양반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했다. 이처럼 18세기는 _____ ㉢

24. 윗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박제는 연행사 행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학의』를 저술했다.
- ② 노론에 속한 전통 주자학자들은 조선이 명나라를 계승한 국가임을 주장했다.
- ③ 북학론은 실용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전통 주자학의 의리론을 부정하고자 했다.
- ④ 근기남인 중 일부는 종교 이전에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 ⑤ 별산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18세기의 광대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활동했다.

25. 윗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실용적인 학문이 도입되면서 주자학의 전통이 도전을 받게 된 시대였다
- ② 새로운 종교의 출현과 함께 유교적 세계관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던 시대였다
- ③ 위정자들의 통치에 반감을 가진 피지배층이 사회 변혁의 움직임을 가시화한 시대였다
- ④ 양반부터 천민에 이르는 사회 전 계층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던 변화의 시대였다
- ⑤ 기존 통치이념의 한계를 절감한 조선 왕조가 새로운 사상의 수용을 통해 자기를 갱신하고자 한 시대였다

26. 윗글의 ㉠과 ㉡이 <보기>의 사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보 기>

수많은 민가는 대체로 다섯 들보가 높이 솟아 있고 띠이영을 덮었는데, 등성마루가 흰칠하고 문호가 가지런하고 네거리가 쪽 곧아서 양쪽까지 마치 먹줄을 친 것 같다. 담은 모두 벽돌로 쌓았고 사람 탄 수레와 화물 실은 차들이 길에 질편하며 벌려 놓은 기명들은 모두 그림 그림 자기들이다. 그 제도가 어디로 보나 시골티라고는 조금도 없다. (중략) 이 책은 청나라의 동쪽 변두리임에도 오히려 이러하거늘 앞으로 더욱 변화할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한풀 꺾여 여기서 그만 발길을 돌릴까 보다는 생각에 온몸이 화끈해진다.

- ① ㉠: 청나라가 야만국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필요하다면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 ② ㉠: 청나라가 중화국가의 적통을 계승했다고 해도 명나라를 멸망시킨 그들과는 절대 친교할 수 없습니다.
- ③ ㉡: 청나라인들은 어리석은 오랑캐에 불과하거늘 어찌 문명국가인 조선에 가르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 ④ ㉡: 청나라의 모든 것이 그곳처럼 질서정연하고 변화하지는 않을 텐데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⑤ ㉡: 청나라가 이토록 발전한 것을 보니 문화국가라는 자부심만 내세워 왔던 조선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前灘富魚蝦 앞 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有意劈波入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 있는데
見人忽驚起 사람보고 문득 놀라 일어나서는
蓼岸還飛集 여뀌꽃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앉았네.
翹頸待人歸 ①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다
細雨毛衣濕 가랑비에 털옷이 다 젖는구나.
心猶在灘魚 ②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있는데
人道忘機立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機心)*을 잊고 서 있
다고.
- 이규보, 「여뀌꽃과 백로」

*기심: 기회를 엿보아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나)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 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 기형도, 「홀린 사람」

27. (가)와 (나)의 공통적인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우의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③ 중의적 표현을 통해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립되는 대상의 유사성을 발견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통념을 전복시키고 있다.

28. (가)와 (나)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가)의 화자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역설적인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 ② (나)의 화자는 공간에 따라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감정을 절제하면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화자가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반면, (나)의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⑤ (가)와 화자가 관조적인 태도로 대상을 묘사하는 반면, (나)의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29.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비를 맞으면서도 ‘물고기와 새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백로의 욕심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② ㉡: ‘사람들’은 대상의 겉모습만 보고 있을 뿐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의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 ③ ㉢: ‘이분’이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가)의 ‘기심을 잊고 있는’ 상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 ④ ㉡: 유령은 실존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자가 제지한 ‘이분’의 속성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⑤ ㉢: 겸손한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에서 백로가 ‘여뀌꽃 핀 언덕’으로 날아가 앉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덕치(德治)를 주장하는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 법치(法治)는 각 개인의 도덕성, 즉 인(仁)을 추구하는 정신과 대립한다. 법(法)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강제적 성격을 지니므로, 인간의 선한 본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유가는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각 개인의 도덕성을 자기 철학의 객관적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법가는 법을 도(道)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사상적 객관성의 토대로 삼는다. 나아가 한비자는 개인 도덕과 국가 이익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고찰을 통해 유가의 덕치를 비판하고 있다. 국가 이익의 실현과 개인 의무의 이행 간에는 상호 모순적 갈등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에 대한 유가적 해결 방식은 개인의 의무 또는 가족 윤리를 국가보다 상위에 놓는 것이다. 유가는 왕도정치, 즉 도덕적으로 완성된 성인에 의한 정치를 이상으로 한다. 덕이 충만한 왕의 감화에 의하여 백성은 자신의 본성을 발휘하고 도덕적,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맹자는 본성을 사단(四端)에서 찾았는데, 단순화하자면 이는 인간의 사회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개인은 수양을 통하여 사단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완성하고 도덕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목적이 된다. ‘몸과 마음을 닦아 집안과 나라, 천하를 평정한다.’(修身齊家治國平天

下)는 유가의 이념은 개인의 본성과 내면적 수양이 국가에 선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믿음을 실현될 수 없는 환상으로 간주하며, 원래부터 선한 사람은 없다고 단언한다. 이에 따라 한비자는 오로지 군주권의 확립만이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군주권의 확립은 공(公)과 사(私)의 엄격한 구분에서 나온다. 사(私)는 본래 사(私)에서 왔으며, 이는 개인의 땅에 줄을 그어 자기 영역에 못을 박아 표시한 형상이다. 이를 부정하고 파기시킨 형태가 공(公)이다. 한비자는 사적 지배 영역을 부정하고 공공 의식을 강조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사리(私利)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유가적 덕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통치행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 된다. 유가에서 주장한 덕치는 군주의 주관과 자의에 의한 통치이며, 이러한 덕치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없다.

한비자에게 정치의 유일한 객관적 표준은 법이다. 법령은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법의 제정과 시행은 군주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 행위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원리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한비자는 그러한 원리를 도(道) 관념에서 구한다. 도는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비자의 법사상은 자연의 질서인 도에서 근거를 구하는 자연법적 사고를 보여준다. 군주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통치하지만, 그것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자연의 질서가 반영된 도에 순응해야 한다. 한편 한비자의 법은 항구 불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영구불변한 제도로서의 법은 없으며, 자연과 시대의 변화 원리에 따라 변법(變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비자가 제시한 법 제정의 원칙은 공리성이 있을 것,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것, 분명하고 명확할 것 등이다. 군주는 형서(刑書) 등을 사용하여 법령을 대중에게 명확히 선포해야 하며, 형벌에 있어서 계급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이처럼 한비자는 주관적이고 사적인 덕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성을 갖는 법으로 통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한비자는 법 제정과 시행의 절대적 권한을 갖는 군주의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다. 한비자는 완벽한 군주를 가정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일 수 있다. 나아가 한비자는 항상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비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않고 있다.

30.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법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면서 법가가 지닌 한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② 사회의 구성 원리에 대한 유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국가의 통치 원리를 비교·대조하면서 국가 통치에 관한 법가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 ④ 예시를 통해 국가와 개인 사이의 딜레마를 설명하면서 유가와 법가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법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면서 법에 기초를 둔 국가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유가는 덕치를 주장하면서 선한 본성이 철학의 객관적인 근본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법가는 자연의 객관적 질서가 반영되어 있는 법이야말로 올바른 정치의 유일한 근거라고 보았다.
- ③ 한비자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군주는 공공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④ 한비자는 완벽한 군주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믿음을 바탕으로 절대적 군주에 의한 법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⑤ 한비자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사적 지배를 부정하고, 공공의식이 국가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 <보기>의 ㉠~㉣에 대해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옛날에는 장부가 경작을 하지 않았다. 초목의 열매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적고 재화에 여유가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다투지 않았다. 하지만 백성이 많아지고 재화가 적어지면 백성들이 서로 다툰다.
- ㉡ 부모가 남아를 출산하면 서로 축하하고 여아를 출산하면 버린다. 부모가 노후의 편안함을 고려하여 장래의 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하물며 부모가 자식 택하는 일이 아님에 있어서라?
- ㉢ 노나라 사람 중에 왕을 따라 전쟁에 나가 때면 패한 자가 있었다. 칠십 된 노모를 봉양할 사람이 없어 죽음을 피하기 때문이었다. 공자는 그를 효자라 추천하여 벼슬에 오르게 하였다. 이후 노나라는 백성이 전쟁에 나아가 쉽게 패하게 되었다.

- ① ㉠: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회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법가에서는 법의 원리와 법률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겠군.
- ② ㉡: 재화가 부족하면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되므로 유가에서는 인간의 사회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수양을 강조했겠군.
- ③ ㉢: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부모가 자식조차 돌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가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고 주장했겠군.
- ④ ㉣: 전쟁에서 고의로 여러 번 패배했음에도 병사에게 벼슬을 내린 것은 유가가 가족 윤리를 국가의 이익보다 중시했기 때문이겠군.
- ⑤ ㉣: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법가에서는 부국강병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전 줄거리: 식민지 시기 각종 편법과 친일 행각으로 재산을 쌓은 이중생은 해방 후 임업에서 제지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욕심을 내다 사기를 당한다. 이 과정에서 이중생의 각종 편법이 탄로 나고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한다. 최변호사는 이중생과 그의 형 이중건에게 이중생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묘안을 낸다.)

㉔ 최변호사 결국 저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사기, 배임, 횡령, 공문서위조 및 탈세범인 위대한 사업가 이중생 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중생만 없어지구 볼 지경이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할 수밖에 없죠! 탈세한 돈이며 연체된 이자며 횡령한 공금을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중생 내가 없어진다?

최변호사 그렇죠. 세상에서, 땅 위에서 없어지구 말아야죠.

이중생 예기! 여보, 내가 죽구서야.

최변호사 쏠! 헛헛! 그런 게 아니와요, 일사면 도무사라 아주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온. (귓속을 하고나서) 헛, 헛 법률적으로 자살이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지, 헛헛. 상속법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중략)

㉕ 김의원 그럼 영감께서는 운명하시는 걸 보셨구면요?

이중건 그럼요, 내가 눈을 감겼죠. 경동맥으로 면도칼을 싹둑 잘라 버렸는걸.

김의원 경동맥으로 면도칼을 잘려요?

최변호사 헛 헛…… 취하셨군. 면도칼로 경동맥을 끊었지.

이중건 어 참…….

최변호사 그래서 여기가 원통 피바다가 됐답니다. 유설랑 고시란히 책탁 위에 놓여 있었죠. 송선생…… 유서는 벌써 전에 꾸며 놓으셨죠, 네?

김의원 유언엔 전 재산을 송선생께 양도하기루 됐다고?

최변호사 글썽 이 점이 또 고인이 대법하시구 출중하신 점 이죠. 보통 인간 같구 볼 지경이면 제아무리 열 사위 미운 데가 없다고 한들 아들딸을 한 구들 두구 어떻게 사위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답니다? 들어보십시오. 돌아가신 어른의 의견이…… 돈이란 건 그걸 잘 이용 할 줄 알구 나라에 유익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법이다. 저 혼자 잘 먹구 흥청거리구 놀라구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을 하자구 귀하 기두 하구 필요두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란 별기보담 쓰기가 힘든 물건이라…… 하식군으로 볼 지경이면 살아 돌아온다 해도 아직 입에 젖비린내 나는 삼십 살 풋내기야 나라를 위해 적당히 쓸 줄 알리 없을 터이구, 백씨 영감이야 실례의 말씀이지만 시골 양반이니 세상 물체를 아실 리 없으니 이루 두말할 필요조차 없구 보니, 예라 모르겠다, 그래두 믿을 만한 위인은 문증을 둘러봐두 여기 계신 송선생밖에 없으려니…… 그래서 유서두 그렇게 쓰셨죠. 그렇습죠? 고인의 유지가…… 송선생…….

송달지 네 - 글썽 뭐 그렇겠쥬.

이중생, 병풍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후수 막까지 나와 귀를 기울인다.

최변호사 그나 그뿐이겠습니까. 유언에 가로되 『황천은 굶어살피소서』 이랬잖아요. 『소생은 죽음으로써 전생의 모든 과오를 청산하나이다』 이랬잖아요. 『개과천선은 고 성현도 용납하시는 바이오니 황천은 이중생을 공홀히 여기사 용서, 용서하옵소서……』 이 정신이야말로 과연 결백하다구 하겠습니까요, 숭고하다구 하겠습니까요.

(가)

이중건 내가 초잡은 게 어쩔소?

김의원 네? 뭇이라구요. (옆방의 이중생 기절하듯)

최변호사 (당황해서) 영감께서는 사랑으로 나가 계시죠.

이중건 옳지 옳지…… 그런게 아니었다! 저 저 사랑 손님이 있어서 전 실례합니다. (후원으로 나가면서 독백) 어 참 큰코 다칠 뻔했군. 기와 집과 삼백만 환이 제물에 살짝 녹을 뻔했지. 달지, 아범더러 후원으로 한상 채려 오라구 이르게.

최변호사 영감이 동생 잃은 후론 그만 뒤죽박죽입니다.

김의원 그러실 테죠.

최변호사 암 그렇구 말구요. 고인의 생전에는 모리배이니 인색가이니 많은 시비두 받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기 간에는 각별했습죠. 이번 유서에도 당신의 백씨* 일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홀룡하시쥬. 보통이 아니예요. 자기가 과오를 범했다구 자결하는 그 용기만 보아두 범인이 아닙네다.

김의원 양심의 가책대루 행동하신 게쥬. 그래 송선생의 희망이라구 할까, 의견이라구 할까, 어떻습니까?

송달지 의견이요?

최변호사 희망? (이중생 긴장한다)

김의원 (달지에게) 조용히 선생을 찾아 말씀드릴 일이지만 고인의 유지두 그러시다니, 우리두 그 유지를 존중하는 의미로 송선생의 의사를 충분히 참고하여 행정 당국과 사법 당국에서도 닥에 유리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아량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필요하게 쓰구 유익하게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변호사 아랑?

㉖ 김의원 (그냥 달지에게) 보건 시설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선생이 의사라구 하시니 말씀입니다만…….

최변호사 네, 우리나라처럼 보건 시설이 불충분한 나라도 없지쥬. (이중생 펄펄 뛴다) 그야 그럴 것이, 지금 끼정은 저마다 도회지서만 개업할라 했구 주사 한 대두 돈 있는 이만 맞게 생겼구, 돈 몇 환 있구 없구루 귀중한 생명이 왔다갔다하지 않았습니까. 무료로 치료해 주는 국립병원이 있지만, 아주 시설이 불충분하거든요.

송달지 (의외로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의사공부를 시작한 것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쥬. 의사란 상업이 아닙니다.

김의원 잘 알겠습니다. 판결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경솔히 말할 수 없으나 송선생의 생각을 관계당국에 보고해서 고인의 재산을랑 특별히 이 방면에 쓰시게 하시쥬? (이중생 곤두박질한다)

최변호사 고, 고인의 재산을 어데다 써요, 해해…… 아, 아니올시다. 고인의 생각은 그렇잖습네다. 좀 더 찬찬히 의논해가 지구설랑 결정하시자…… 해해!

(중략)

김의원 잘 아실 분이 일부러 오해하시는 것 같구먼요. 사기, 배임, 공금 횡령, 탈세, 공문서 위조 등을 법적으로 청산하면 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최변호사 그렇겠지만 개인 재산이야 침해할 수 없잖아요? 더욱이 이 양반에게 양도된 이상…….

김의원 그렇기에 우리는 이중생 자신이 이미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였으므로 고인의 소유였던 재산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우선 상속자인 송선생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만일 가족 가운데 불만이 계시면 자기 죄과를 자인하고 입증하는 고인의 유설량은 없애 버리구 이중생을 다시 살려내가지구 상속자인 송달지 씨를 걸 어 고소라도 하시오.

이중생, 옆방에서 『그럼 법이』 하고는 제 손으로 입을 틀어 막는다. 송과 최 어쩔 줄을 모른다.

*백씨(伯氏) : 다른 사람의 만행을 높여서 이르는 말

- 오영진,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33.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송달지는 의사라는 직업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 ② 이중건은 내심 이중생의 정체가 탄로나기를 바란다.
- ③ 최 변호사는 이중생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를 돕고자 한다.
- ④ 김 의원은 이중생의 재산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송달지는 최 변호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중생을 돕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2.5점]

<보 기>

연극에서 극 중 정보를 인물보다 관객이 더 많이 알고 있도록 배치해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과 웃음, 슬픔 등을 강화하는 방식을 극적 아이러니(dramatic irony)라고 한다. 이 방식을 잘 활용할 경우 극적 재미를 높이고 극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① 관객들은 병풍 위 이중생의 존재가 들키지 않을까 긴장하며 연극을 즐길 것이다.
- ② 관객들은 김 의원 앞에서 실수하는 이중건을 보며 그의 실수로 극중 음모가 탄로 날까 궁금해 할 것이다.
- ③ 관객들은 최 변호사가 말하는 이중생의 반성이 거짓임을 알기 때문에 이중생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 ④ 이중건의 답변에 대한 이중생의 반응들은 이중생의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⑤ 만약 김 의원이 이중생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독백을 한다면 관객이 느낄 극적 아이러니의 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35. 다음은 위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이다.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은정: ㉠에서 '최 변호사'를 맡은 배우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로, '이중생'은 미심쩍은 태도로 연기하면서 두 사람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수진: ㉡에서 '최 변호사'를 맡은 배우는 '이중건'의 말에 당황하며 이중건에게 눈치를 주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 ③ 수진: ㉢에서 '이중건'을 맡은 배우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듯 가벼운 행동과 말투로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진혁: ㉣에서 '송달지'는 다른 인물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열띤 어조로 말하는 것이 좋겠어.
- ⑤ 효섭: ㉤에서 '김 의원'은 '송달지'에게 은근한 말투로 대사를 하게 해서, '송달지'가 '최 변호사'와 같은 편인가를 떠보려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어.

36.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의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1949년에 공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해방 직후 시급했던 문제 중 하나가 친일 잔재의 청산이었다. 친일 잔재의 청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었겠지만 일제에 협력했던 인사들에 대한 심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이와 같은 당대의 상황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문학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회적 특성이 강한 연극의 특성상 어떤 장르보다 적극적인 발언이 나왔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해방 직후 연극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잔재 청산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해방이 되었어도 검열은 여전히 있었고, 친일 인사들의 입김이 줄어들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연을 전제하는 희곡의 창작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 ① 이중생이나 최 변호사, 송달지 등이 윤리의식이 결여된 인물로 설정된 것은 해방 이후 세도가를 비판하기 위한 설정이다.
- ② 이중생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기득권을 유지해 온 인물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③ 이 작품이 이중생의 위장된 자살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해방 직후의 검열을 의식하여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④ 친일 행각을 일삼던 이중생이 해방 후에도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당시 친일 인사들이 청산되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최 변호사가 상속법을 이용하는 것은 친일 인사들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처벌을 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7-40] 다음 소설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몸은 다섯 번 죽고 다섯 번 살아났다.

최초의 출생을 포함하면 다섯 번 죽고 여섯 번 살아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출생이란 살아났다고 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다르니 역시 다섯 번 죽고 다섯 번 살아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까. 어느 쪽이든 굳이 말하자면 의미 없는 이야기다. 모처럼 뜨거운 이 몸에서 열을 내고 있는 것은 이 몸을 먹어 치우려는 염증의 무리일 뿐, 차갑지도 뜨겁지도 못한 채로 간신히 생각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 몸은 곧 죽을 것이다. 시력은 거의 사라졌다. 바닥에 바짝 닿은 턱을 통해 흠뻑새를 맡는다. 이미 밤. 이 몸은 지방 인간들이 둘러놓은 장막 안에서 이 몸을 더럽히는 세계가 완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묘생(猫生) 십오 년, 인간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몸, ㉠나는 인간의 우방이 아니다.

㉡평생을 먹을 것과 거주를 두고 인간과 경쟁했다.

경쟁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쫓겨 다니기만을 반복했으므로 평생을 먹을 것과 거주를 두고 인간을 원한했다, 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까. 내게도 삼색 털이 아름다운 비율로 섞인 어미와 형제들이 있었다. 모두 죽었다. 미심쩍은 고기를 나누어 먹고 파를 토하다가 딱딱해졌다. 내가 그들처럼 되지 않은 것은 여덟 마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쇠약해 어미가 물어다 준 고기를 입에 대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거울이었다. 홀로 살아남아 미요미요 울었다.

눈이 내렸다. 내리는 동안 자취 없이 녹아버릴 정도로 미약한 눈이었으나 우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찰라찰라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려왔다. 더는 올 기운도 없었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인간에게 발견되었다. 발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비 가림 역할을 하는 널빤지 틈으로 동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밋밋한 얼굴을 가진 ㉢노인이었다. 나는 경계했다. 생기를 잃어 납작해진 어미의 등 뒤로 대피해 노인을 노려보았다. 그가 널빤지 틈으로 손을 넣었다. 잔뜩 없드렸으나 그 손에 잡혀 노인의 방으로 옮겨졌다. 노인은 딱딱한 침상에 걸터앉아 나를 무릎 위에 올렸다. 노랑게 마디진 손가락으로 내 발이며 목을 주물렀다. 이따금 얼굴 높이로 들어 올려서 입김을 불어넣고 다시 주물주물 만졌다. 이 과정 중에 체온을 받았다. 고양이 몸으로 인간의 체온을 받아들였다. 인간의 앞발이랄지 그들 나름대로 손이라고 구별해 부르는 오목하고 주름진 부분에 배를 붙이고 눈꺼풀 속이 빨개지도록 찢아찢 체온을 빨아들었다. (중략)

이런 개 같은 인간, 하며 노인에게 방문객이 들이닥친 것은 어느 끈적끈적한 오후의 일이었다. 단한 문을 발로 차고 등장한 그는 아래층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자물쇠며 각종 도구들을 진열한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팔거나 열쇠를 깎는 남자였다. 언젠가 나는 그로부터 조기 껌질과 머리를 얻어먹은 적이 있었다. 점시에 남은 것을 몇 조각 던져주고 내가 먹는 것을 올적하게 지켜보던 모습을 기억해 두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곡씨 노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칠게 백발이 섞인 머리에 어깨가 넓었다.

그는 입구에 서서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 곡씨 노인에게 물었다. 돈 돈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 외쳤다. 그러니까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느냐고 어떻게 했느냐며 주먹으로 문을 쳤다. 공들여 열쇠를 깎는 데 사용하던 손을 폼다 말았다 하며 금방이라도 곡씨 노인을 툴질 듯 바라보았다.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내가 내 가게 세를 당신한테 줘야 안 쫓아, 당신이 그걸 받았어 안 받았어,라고 남자가 물어도 쫓다거나 안 쫓다거나 대답 않고 자기 발가락 쪽을 보고 있었다. 남자는 분을 삭이지 못해 얼굴을 붉히고 서 있다가 노인의 라디오를 집어 바닥에 던졌다. 라디오가 깨지고

부품이 튀었다. 그 속에 서식하던 벌레들이 바깥으로 나왔다가 불빛을 보고 허겁지겁 기계 속으로 돌아갔다. 대답해 보라고 남자가 말했다. 말해 보라고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 보라고 다섯 달치나 되는 돈 그 돈을 왜 가게 주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지 당신이 말해 보라고 그 돈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갔는지 대답을 해 보라고 하며 그는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 벽을 향해 던졌다. 부러질 듯 벽을 맞고 튕겨나간 의자가 침상에 박혔다. 노인이 그래도 대답을 않고 있자 남자는 두 손을 허리에 얹었다. 숨을 고르는 것처럼 천장을 향해 얼굴을 들더니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 도저히, 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 내며 그가 한발 한발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밀쳤다가 끌어당겼다가 도로 밀치기를 반복하며 그는 인간아,라고 부르고 있었다.

때릴 수도 없고 인간.

이걸.

때릴 수도 없고.

마침내 노인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아 책상에 놓여 있던 돈보기 단추 필기구를 넣어 둔 나무접시 같은 것들이 노인의 팔에 끌려 바닥으로 노인의 빈약한 배 위로 떨어졌다. 남자는 뒤로 물러나서 노인을 내려다보며 해결해,라고 말했다. 어떻게든 뭘 팔아서든 해결해,라고 말하면서도 가망 없다는 듯 울적한 얼굴로 방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가 버렸다.

나는 숨어 있던 곳에서 털을 세우고 나왔다. 어지러운 방안을 돌아다니며 남자가 만진 사물들의 냄새를 일일이 확인하고 노인을 향해 앉았다. 노인은 천천히 움직였다. 배에 얹힌 돈보기와 바닥에 흩어진 단추 필기구 나무접시를 주워서 책상 위에 올리고 깨진 것들을 점검했다. 부서진 라디오를 추스를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작은 조각 하나까지 빠짐없이 봉지에 모았다. 의자를 바로 세워 두고 그 밖의 깨진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말려 올라간 이불을 정돈한 뒤 서랍을 뒤져 어느 시절의 제품인지 모를 더러운 반창고를 꺼내 넘어질 때 생긴 팔꿈치 상처에 붙였다. 마지막으로 벽에 걸려 있던 점퍼를 떼어 내 툭툭 먼지를 털어 도로 벽에 걸어 두고 침상에 걸터앉아 쉬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더듬으며 앉아 있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를 열고 안을 살핀 뒤 구겨진 쟁반에 먹을 것이 담긴 그릇을 담아서 침상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무릎에 쟁반을 올려 두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발 근처로 가서 묘, 하고 말했다. 호오, 하고 노인이 말했다.

너는 이름이 뭐냐 뭐라는 짐승이나 이름도 없이 살아가니 좋으나 이 몸이 이름을 붙여 줄까 몸 몸 몸은 어찌나 몸 돌이킬 수 없도록 몸이라 이봐라 몸 그러고 보니 너 참 불품 없구나 ㉤보잘것없는 몸이로구나 보잘것없기로는 나도 뒤처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보잘것없는 것을 먹고 보잘것없이 살아왔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박차고 나갈 패기도 없이 말이다 내일 죽어도 안타까울 것이 없으나 아들이 하나 있다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다 살아 있다면 아비와는 다르게 패기 넘치게 살아 있을 것이다 그놈은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들푹 먹을 것이다.

노인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은 밥을 먹느라고 말을 쉬었다. 맛도 냄새도 묘한 무 반찬을 집어 우적우적 씹더니 턱에 국물을 묻힌 채로 말했다.

아비 곁에서는 도저히 수가 없다며 떠나가는 자식에게 매달려보지도 못하는 인생이란 야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 그걸 아냐 그놈이 아비하고는 다르게 살아 보

겠다고 그토록 박차고 나갔건만 실은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아들의 인생이라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놈도 나와 똑같이 보잘것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웃었다. 음식을 담은 볼이 불룩하게 도드라졌다. 털을 곤두세우고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웃는다 운다 애석하다 통쾌하다 어느 것도 아니게 다만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 몸과 같은 묘씨생보다도 못한 일생으로서의 인생, 바로 그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이라서 더욱 그랬는지도 몰랐다. 노인은 여하간 목이 메었는지 반찬 그릇을 쥐고 국물을 마셨다.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국물을 주욱 마시고 속이 시원하다는 듯 한 차례 더 웃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워온 반찬을 먹었다. (중략)

③노인의 기괴한 얼굴, 말하자면 인간의 얼굴을 목격한 뒤로 수일 뒤,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의 집을 실어 냈다. 책상 침상 의자 주전자 난로 라디오 냉장고 껌 껌 선반 이불 한 점 말고도 다양한 사물들이 그 방에서 밀려 나와 복도에 쌓였다. 곡씨 노인은 별다른 할 일 없이 방 안팎을 드나들거나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꺼리며 다루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짐이 바깥에 부러진 뒤로는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딘가로 짐을 날랐다. 전부 나른 뒤에 그는 살던 방으로 돌아왔다. 새로 그 방에 들기로 한 사람들이 벽이며 바닥에 뱀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며 비질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입구에서 방을 둘러본 뒤 자신의 바나, 버너를 가리켜 보았다. 손수 개조한 버너인데 자신에게는 이제 소용이 없으니 두고 간다고 그는 말했다. 화력이 세서 아주 유용하다고 직접 불을 켜 보이고 대견한 듯 아쉬운 듯 불꽃 다발을 들여다보았다. 새로 그 방에 들기로 한 사람들은 노인에게 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두고 가스 튜브를 잘라 버너를 바깥에 내다 놓았다. 저녁에 노인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놓인 자기 버너를 보았다. 어쩔까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그는 그 물건을 챙겨서 새로운 거주지로 가져갔다. (중략)

노인은 이 방에서 연결할 데도 없는 버너를 구석에 놓아두고 침상에 앉아 지냈다. 날이 쌀쌀해지고 더욱 쌀쌀해져도 경첩에 받쳐 둔 나뭇조각을 빼지 않고 놓아두어서 이따금 내가 그 틈으로 드나들었다.

어느 날 배가 젖어 돌아가니 문이 닫혀 있었다. 그 뒤로 노인을 만나지 못했다.

- 황정은, 「묘씨생」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여 인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화자인 '나'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들을 관찰하고 있다.
- ③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표현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 ④ 서술 가운데 구어체를 섞어 씩씩으로 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인물과 밀접한 공간의 묘사를 통해 삶을 핏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38.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이사를 앞둔 아들에게 가게 세를 보내 주었다.
- ② 시비를 거는 아래층 남자를 기세로 제압하였다.
- ③ 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었다.
- ④ 못 쓰게 된 것도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모아 둔다.
- ⑤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9.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 '나'는 인간 세계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 ② ㉢: '나'의 동족을 쫓거나 마치 고양이들처럼 음식을 주워 먹는 인간들이 있다.
- ③ ㉣: '나'에게는 인간 종을 부르는 말로 들리지만 실은 '가망 없는 인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④ ㉤: '나'에게 노인이 지어준 이름은 자기 몸밖에 가진 것이 없는 존재들 간의 공감의 표현이다.
- ⑤ ㉥: '나'는 노인의 얼굴에서 가족에게 애증을 느끼는 인간 특유의 표정을 발견한다.

40. 윗글의 화자 '나'와 <보기>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간의 심리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지금 주인이 화를 내고 있는지, 들떠 있는지, 또는 철학자의 책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상에 냉소를 보내고 있는 건지, 세상에 섞이고 싶은 건지, 사소한 일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건지, 세상사에 초연한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에 비하면 고양이는 단순하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가 나면 열심히 화를 내고, 올 때는 죽어라 운다. 우선 일기처럼 쓸데 없는 건 결코 쓰지 않는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주인처럼 길과 속이 다른 인간은, 일기라도 써서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어두운 방에서나마 발휘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고양이족은 견고 멈추고 앉고 눕는 일상생활, 똥을 누고 오줌을 누는 자잘한 일 등이 모두 진정한 일기이니, 특별히 그렇게 성가신 것을 하면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일기 쓸 시간이 있다면 뒷마루에서 잠이나 자겠다.

- 나츠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 ① 윗글의 화자 '나'는 인간 삶의 고단함에 공감한다.
- ② <보기>의 화자는 인간의 이중적 면모를 풍자한다.
- ③ 윗글의 화자 '나'와 <보기>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관찰한다.
- ④ <보기>의 화자는 인간이 글을 쓰는 행위를 세상에 대한 냉소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 ⑤ 윗글의 화자 '나'는 인간을 먹고 자는 일에 얽매인 존재로 바라보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먹고 자는 일 외에도 다양한 욕구를 지닌 존재로 여긴다.